

2024 October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연구원 이유정
Tel. 02-729-0190
yjlee.r@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9월 동향

월초 미국 주요 경제지표 부진한 국면 속 물가 하락 추세 반영한 9월 통화정책 '빅컷' 단행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강화되는 흐름이었지만, 향후 금리인하에 대한 속도조절 인식 등으로 추가 하락 제한된 국면

미국 7월 CPI가 시장 예상에 부합한 가운데 경기 지표 악화 등에 따른 침체 우려 재확산 영향 등으로 미 국채금리 하락에 연동 국면 시현

미국 9월 통화정책에서 빅컷 단행되었지만, 선제적 금리인하에 영향 미친 측면 이외에 향후 연준 인하 속도에 대한 매파적 뉘앙스에 따라 국내외 금리 하락세 제한된 양상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주요 연준 당국자들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서도 대체적 도비시 우위 속에 금통위 향후 방향성 또한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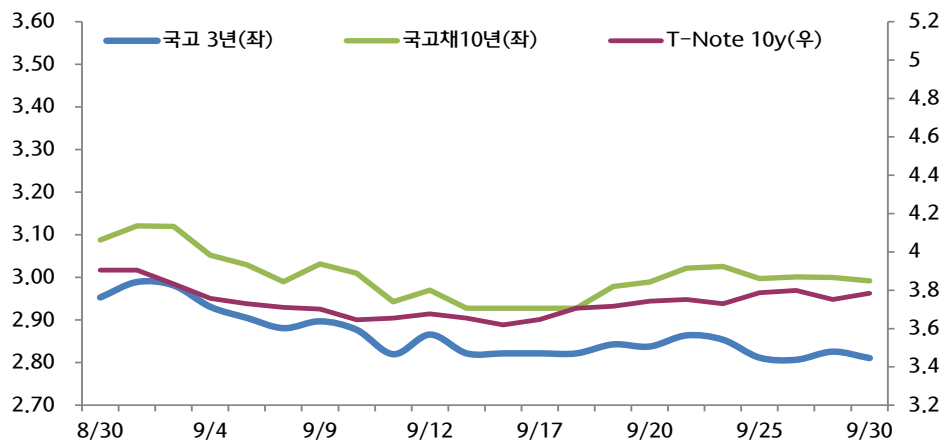
- 월초, 미 7월 PCE 지표 예상 부합한 가운데 주요 경제지표 악화에 따른 침체 우려에 안전자산 선호 강화되며 미 국채 금리 하락에 연동 흐름 보이며 출발 후 소폭 상승 전환
 - 월 초, 7월 미국 PCE의 시장 예상 부합과 국내 소비자 물가지표 2.5% 상승 속 3년 5개월여만의 최저치 도달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출발한 양상
 - 이후, 미 제조업과 노동부 구인보고서 상 구인건수 부진 등을 반영한 경기침체 우려 재확산 속에 8월 비농업고용지표 예상치 하회 등에 따른 연준 당국자의 금리인하 언급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추세 지속 후 일부 되돌림 된 흐름
- 중반, 미 8월 CPI 상승과 한은 매파적 정책 기조에도 연준 빅컷 기대 반영하며 큰 폭 급락하였지만 FOMC 빅컷 후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매파적 인식으로 국내외 금리 하락세 제한
 - 중반, 국제유가 수요 부진에 급락 반영한 미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국고채 금리 하락 지속 후, 8월 미 CPI 상승과 한은의 과도한 금리인하 반영 언급 등 매파적 기조에도 연준 빅컷 기대감으로 금리 급락
 - 연휴 이후 9월 FOMC에서 빅컷이 단행되었지만 연준 향후 인하 속도에 대한 언급이 매파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 금리 하락 추세 제한된 국면
- 후반, 미 제조업 등 전반적 경기지표 부진 속 연준 당국자의 비둘기적 발언이 이어진 가운데 금통위원들 또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해 도비시한 의견을 개진한 영향 등이 금리 하락에 영향
 - 후반, 미국 제조업 등 주요 지표 부진이 이어진 가운데 연준 당국자간 의견 표출이 엇갈린 영향 속에 빅컷에 대한 선제적 선반영 흐름 일부 되돌림 양상에 따라 소폭 금리 상승 양상을 보인 국면
 - 이어 한은 금통위원의 도비시한 언급, 특히 '가계부채 상승모멘텀 둔화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시사가 10월 기준금리 인하를 크게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국고채 금리는 하락 추세 속에 마감

9월 평균

국고채(3년): 2.86%

T-Note(10년): 3.78%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10 월 전망

연내 추가 인하에 대한 비둘기 기조가 연준내 주류 변화로 변모된 상황 속 중동 정세 불안정성이 단기 안전자산 선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여기에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금리하락 요인으로 예상

평균	1Q24	2Q24	3Q24	4Q24
국고채(3y, %)	3.30	3.38	2.95 ^(F)	2.80 ^(F)

9월 FOMC 빅컷 이후 2번의 통화정책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총 50bp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25년에도 이어질 기대 선반영 등이 원화 강세 기조 강화 영향 요인

대외 거시, 지정학적 요인인 중국 경기 부양 움직임 지속과 중동 지정학적 이슈는 금리 방향성에 엇갈린 영향을 반영하며 보험 등락 흐름의 영향 미칠 전망이다

10월 국고채(3Y) 금리는 2.80%~2.90%

- 9월 FOMC 빅컷 이후로도 연준은 미국 경제 및 노동시장 냉각을 고려한 통화정책 경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연내 50bp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 등이 국내외 금리 하락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미국 제조업 PMI 부진 속 노동시장도 고금리 시차적 영향으로 냉각 기조 이어질 것으로 예상. 이에 연준은 연내 남은 두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50bp 금리 인하 단행 후, '25년까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 9월 빅컷 이후로도 물가에서 노동시장 냉각 우려가 점증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연준 위원들의 연내 추가 인하 지지의 도비시 성향 등이 미 국채금리 하락을 통해 국내 금리 하락에 영향 미칠 전망이다
- 대외적 중국 추가 경기 진작 움직임 등은 국내 수출 개선 등을 통한 경기 모멘텀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금리 하방 압력을 완화할 요인.** 반면, 확전 가능성이 높아지는 중동정세 불안정성 등은 안전자산 선호를 통해 상기 요인과 상충적으로 금리 하락 지지할 전망이다
 - 중국 경기 둔화 방어를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 움직임은 국내 수출 개선 영향 요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경기 모멘텀 강화 등에 따라 글로벌 통화정책 상의 금리 하방 압력 완화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하지만 중동 정세가 이란 개입, 전쟁 확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영향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 있는 측면이 상기 요인과 상충 효과를 발현하며 대외적 요인의 국고채 금리 영향은 보험권 예상
- 미국 9월 FOMC 빅컷 영향과 대내적 내수 부진 및 물가 하락 전망 경로 유지 등이 10월 한은 결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이나 가계부채 증가세 등에 따른 금융 안정 위험 고려 등이 매파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은 금리 하단 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대내적 소비 부진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경로는 국제유가의 낮은 수준 등을 반영 목표 경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여기에 연준의 '빅컷' 영향 등의 반영 가능성에 따른 한은 전격적 금리 인하 기대 등이 금리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다만, 그간 한은 금리 동결에 주요 배경이었던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세에 따른 금융안정 위험 요인 등의 고려 가능성 등은 금리 하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 경기 진작 등에 의한 국내 수출 경기를 통한 회복 모멘텀에 긍정적 영향 한은의 국내 가계신용 위험 등에서의 매파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9월 연준 '빅컷' 기대이후로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금리 인하 경로 유지 기대감 중동전쟁의 확전 가능성에 의한 안전자산 선호 10월 한은의 25bp 금리인하 가능성 반영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9 월 동향

9월 FOMC에서의 연준 빅컷 단행에도 향후 인하 속도 관련 불확실성 상존에 환율 하방 경직성 보였으나 중국 경기 회복 기대 속 위험선호 심리와 미 물가 둔화로 인한 추가 빅컷 기대감에 1,300원대로 급락

미 경기침체 우려로 인한 리스크오프 분위기에 연준 빅컷 가능성에 환율은 하락 전환했으나, 연준 금리인하 속도 조절 인식에 큰 폭 상승하며 1,340원대 재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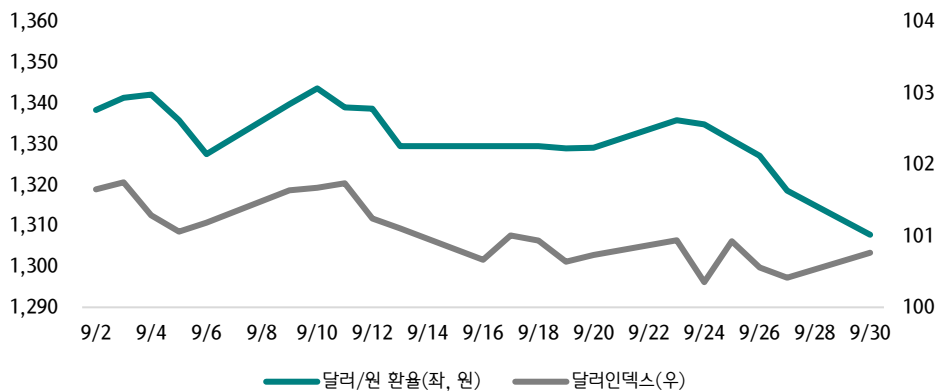
연준 빅컷 기대를 선반영한 글로벌 약달러에 환율은 하락 압력 받았으나 9월 FOMC의 50bp 인하 결정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 발언이 다소 매파적으로 평가되자 추가 하락 제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 확인에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된 국면 속에 시장 예상을 밑돈 미 PCE물가에 따른 연준 추가 빅컷 전망과 달러 약세에 1,300원대로 급락

- 월초, 미 제조업황 위축세로 인한 위험회피 심리에 상승 출발. 이후 고용 둔화 조짐 속 연준 피벗 기대를 반영하며 하락 전환했으나 인하 폭 불확실성에 달러 반등하며 1,340원대 진입
 - 월초, 미 소비심리 개선 흐름과 예상에 부합한 PCE에도 미 8월 ISM 제조업 부진으로 경기침체 우려가 재차 자극된 가운데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도에 환율은 상승 출발
 - 이어, 미 고용 둔화 전망 속 달러 약세 등으로 하락. 하지만 예상을 밑돈 미 비농업 고용지표에도 점진적 인하 시사한 연준 위원 발언과 고용시장 냉각이 위험회피 자극하며 상승 전환
- 월 중반, 시장 내 선반영된 연준 빅컷 기대가 견인한 글로벌 달러 약세에 1,320원대 진입했으나 Fed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도 파월의장 발언에 대한 매파적 평가에 환율 하단 제한된 양상
 - 중반, 미 8월 근원CPI 전월비 상승폭 확대에 빅컷 전망 후퇴했으나 언론과 시장의 50bp 가능성 제거로 빅컷 기대감 재유입된 가운데 BOJ 위원 매파 발언에 따른 엔화 강세에 1,320원대 하락
 - 추석 연휴 기간 글로벌 시장 내 고조된 연준 빅컷 기대에 역외시장 환율은 1,310원대 진입했으나 9월 FOMC 50bp 인하 결정에도 파월 의장의 향후 인하 속도 조절 시사에 1,320원대 후반에서 하단 지지
- 후반, 비둘기적 BOJ와 유로존 경제 부진 등 주요 통화 약세에 달러 반등 후,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을 반영한 위험선호 분위기와 미 물가 둔화세로 인한 연준 추가 빅컷 기대에 급락
 - 후반, BOJ 9월 금정위에 대한 비둘기 평가 속 엔화 약세와 유럽 경기 위축에 따른 유로화 약세가 달러에 지지력 부여했으나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발표 소식 이후 위안화 강세에 연동되며 하락 전환
 - 9월 FOMC 빅컷 이후 확산된 미 경기 연착륙 전망과 중국 경제 회복 기대로 위험선호 심리 유입된 가운데 미 PCE물가 2% 초반 진입에 따른 11월 추가 빅컷 가능성 속 1,300원대 초반 급락 마감

9월 달러/원 평균환율 : 1,332.8
9월말 달러/원 환율 : 1,307.8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추이



10 월 전망

연준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 속 달러 약세 흐름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 통화완화 전환 가능성 등 원화 약세 요인으로 환율은 1300원 초반대에서 하단 지지될 전망이다

평균	1Q24	2Q24	3Q24	4Q24
달러/원 환율(원)	1,329	1,371	1,358	1,295 ^(F)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과 연내 추가 인하 전망을 반영하며 달러는 안정적인 약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시장의 추가 빅컷 기대는 제한될 측면이 달러의 약세폭은 제한될 전망이다

미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 확전 위기 고조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될 가운데 내수 부진으로 인한 한은 금리인하 가능성도 원화 약세를 자극할 요인으로 판단

10월 달러/원 환율
1,295원 ~1,340원 예상

- 9월 FOMC의 빅컷 개시와 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시사에 달러 약세 기조 이어지겠으나 향후 인하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달러 추가 약세를 제한할 전망이다

 - 연준이 9월 FOMC에서 2년 반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한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과 고용시장 냉각 우려에 따른 연준 위원들 비둘기 기조로 달러는 안정적인 약세 흐름 유지할 것으로 예상
 - 다만, 미 소비심리 위축과 PCE 둔화에 추가 빅컷 전망이 우위 보였으나 파월 의장의 경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단계적 인하 시사에 앞서간 시장 기대가 조정될 측면은 달러 추가 약세 제한할 전망이다
- 미 대선 불확실성, 중동지역 긴장 고조에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추가 경기 부양 이슈와 BOJ 긴축 속도 조절에 따른 상대적 달러 강세가 원화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초점전 양상 속 불확실성 점증될 측면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확전 위기가 고조된 점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회피 심리 자극하며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미-중 무역분쟁 이슈 부각으로 인한 위안화 약세 전망 및 BOJ 총재의 추가 인상 관련 신중한 스탠스는 원화 강세 제한 요인으로 예상
- 한국 수출 호조에도 국내 중시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원화 약세 압력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 성장 모멘텀 약화 및 한은 피벗 예상이 환율 상승 영향 요인으로 판단

 - 한국 반도체 수출 실적 호조 및 연준 금리인하로 인한 글로벌 투자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시 외국인 자금이 반도체 업황 우려 등으로 유출되고 있는 점은 원화 강세 제한 요인
 - 대외적 Fed 금리인하 사이클 진입과 한국 소비자물가 1%대 진입 및 내수 부진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에 10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개시할 가능성이 높아진 측면도 원화 약보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의 인하 속도 조절에 대한 경계감 미 대선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분위기 국내 중시 외자 유출과 한은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준 연내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약달러 반도체 부문 중심의 한국 수출 증가세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9월 달러/엔 평균환율 : 143.2
9월 엔/원 평균환율 : 930.6

10월 엔/원 예상범위 : 895~925원

연준 빅컷과 이어진 추가 완화 영향이 엔화 강세 견인한 주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최근 BOJ 긴축에 따른 일본 대외 부문 약화 우려 등은 시장의 추가 긴축 기대에도 BOJ가 연내 완화적 스탠스 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

- (엔화 동향) 미 고용시장 둔화 시그널에 경기침체 우려가 나타나자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며 엔화는 강세로 출발. 중반, BOJ 관계자의 매파적 발언과 연준 빅컷 가능성에 급격한 강세 보이며 140엔선 하회했으나 추가 긴축 속도조절을 시사한 9월 금정위 결과에 약세 전환. 후반, 비둘기 BOJ 여파에 따른 약세 흐름에도 금리인상 지지 입장을 표명해 온 이시바 일본 총리 선출 소식에 엔화 가치 반등했으나 파월 의장 매파적 발언에 약세 보이며 143엔대 마감
- (엔/원 전망) 연준 9월 빅컷 이후 추가 인하 예정 속 미-일 금리차 축소 요인 등이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미-중 경제 둔화 움직임 속 최근 엔 강세에 따른 대외 부문 약화 우려 상존 등이 일본 경기 회복력에는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 이는 시장 추가 긴축 기대에도 연내 BOJ 추가 긴축 가능성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판단. 이에 엔화는 소폭 약세 흐름이 예상. 연준 9월 빅컷과 추가 인하 전망에 따른 미-일 금리차 축소가 엔화 강세 지지 요인으로 예상. 반면, 이러한 엔화 강세와 최근 미-중 경제의 냉각은 일본 대외 부문 약화를 통해 경기회복력에 부정적일 전망. 이는 시장 추가 긴축 기대에도 연내 BOJ가 추가 긴축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약화시킬 요인으로 판단. 엔/원 환율은 미국 추가 긴축 기대 등에 따른 원화의 상대적 영향 우위 속에 910원을 소폭 하향할 전망

유로/원 전망

9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105
9월 유로/원 평균환율 : 1,479.5

10월 유로/원 예상범위 : 1,450~1,465원

역내 소비 반등이 서비스 물가 하방 경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연준 인하 기조 등이 유로 강세 요인으로 판단. 다만 미 경제 대비 미약한 경기 회복에 따른 ECB 통화완화 유지 기조가 전반적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 (유로화 동향) 9월 FOMC에서 연준이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라 기대가 고조되며 유로화는 달러 대비 강세 출발했으나, 유로존 경제지표 부진 속 추가 완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며 약세 전환. 중반, ECB의 25bp 인하 결정에도 예상보다 매파적인 라가르드 총재 발언과 연준 빅컷을 소화하며 추가 강세를 보임. 이어 주 후반, 유로존 주요국 물가 둔화세 지속에 따른 ECB 10월 추가 인하 가능성이 측면이 유로화 약세 견인하며 1.11달러선 마감
- 8월 물가 2.2% 안정화 속 내수 부진 등으로 9월 25bp 금리인하 단행에도 경기 모멘텀 둔화세는 유지되는 국면. 임금 상승 요인 등이 소비 반등 여력을 뒷받침하기는 하나 서비스 물가 하방경직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은 적극적 통화 정책의 부정적 요인으로 판단. 하지만 중부유럽 전쟁 여파 등으로 여전히 위축된 경기 심리에 대한 수요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따라 유로화는 소폭 약세 이어질 전망.
 - 역내 임금 상승 요인 등이 소비 반등 뒷받침 함에도 서비스 물가 하단 제한 등에 따른 요인이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부정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요인
 - 하지만 중부유럽 전쟁 지속 등에 따라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는 수요진작을 위한 추가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유로화는 소폭 약세 예상. 유로/원은 상대적 유로존 완화기조 강화 속 1,450원대 하향이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4년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한국 휴장(국군의 날) 【휴장】 한국(국군의 날), 중국, 홍콩(국경절) BOI 9월 금정위 요약본 공개 한 9월 수출/입(YoY +11.4%, +6.0%) S&P 글로벌 제조업 PMI(51.9) 미 8월 건설지출(MoM -0.3%) 9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F] ISM 고용, 신규주문, 제조업, 구매물가 델타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7.7)	2 【휴장】 중국(국경절) 한 9월 CPI(MoM +0.4%, YoY +2.0%) CPI 근원(YoY +2.1%) 미 9월 ADP취업자 변동(99K) 유 8월 실업률(6.4%) 일 9월 소비자대지수(36.7)	3 한국 휴장(개천절) 【휴장】 한국(개천절), 중국(국경절) 미 8월 제조업수주(MoM +5.0%) 근원 제조업수주, 내구재 주문[F] 9월 Challenger Job Cuts(YoY +1.0%) S&P 글로벌 서비스업, 종합 PMI[F] ISM 서비스, 가격, 고용, 신규주문 유 8월 PPI(MoM +0.8%, YoY -2.1%) 9월 HCOB 서비스, 종합 PMI[F] 일 9월 지분 은행 종합, 서비스 PMI[F] 호 9월 주도은행 호주PPI 종합(49.8) 주도은행 호주PPI 서비스업(50.6)	4 미국 고용보고서 【휴장】 중국(국경절) 미 9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142K)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118K) 제조업임금변동, 실업률(4.2%) 시간당 평균 임금(MoM +0.4%) 경제활동 참가율(62.7%)	5	
10월 주요 이슈 한국 휴장(10/1, 3, 9) 미국 부통령 후보 TV 토론(10/1) 미국 고용보고서(10/4) 옵션만기일(10/10) 한국 금융통화위원회(10/11) OPEC 일간 원유시장 보고서(10/14) ECB 통화정책회의(경제전망)(10/17) 브릭스 정상회의(10/22-24) 연준 베이지북 공개(10/23) IMF/WB 연례회의(10/25-27)	6	7 【휴장】 중국(국경절) 미 8월 소비자신용지수 유 8월 소매판매(MoM +0.1%, YoY -0.1%) 10월 섀넥스 투자자대지수(-15.4) 일 8월 섀넥스 지수, 동행지수[P] 독 8월 공장수주 (MoM 2.90%, YoY 3.70%)	8 지존일 미 9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91.2) 일 8월 실질 임금총액(YoY +0.4%) 9월 경기관찰조사 현행, 전망(49, 50.3) 독 8월 산업생산 (MoM-2.40%/ YoY-5.30%) 호 9월 NAB 경기대지수 NAB 경기지수	9 한국 휴장(한글날) 【휴장】 한국(한글날) 미 9월 도매무역, 도매재고[F](MoM +1.1%) 중 9월 통화공급 M2(YoY +6.3%) 일 9월 공작기계 수출[P](YoY -3.5%)	10 옵션만기일, 미국 CPI FOMC 9월 회의록 공개 (03:00) 미 9월 CPI(MoM +0.2%, YoY +2.5%) CPI 근원(MoM +0.3%, YoY +3.2%)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YoY +1.3%) 주간 평균 실질 소득(YoY +0.9%) 일 9월 PPI(MoM -0.2%, YoY +2.5%)	11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휴장】 홍콩(중양절) 【한국 금융통화위원회】 (1)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2) 연준이 빅테크에 대한 금리 인하 시점 관심 확대 미 9월 PPI(MoM +0.2%, YoY +1.7%) PPI 근원(MoM +0.3%, YoY +2.4%) 10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P]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P] 일 9월 통화량 M2(YoY +1.3%) 공작기계 수출[F](YoY -3.5%)	12
13	14 【휴장】 일본(체육의 날) 미국 콜롬버스 데이 : 채권시장 휴장, 주식시장 개장 중 9월 수출/입(YoY +8.4%, +0.5%) 영 8월 월간 GDP(MoM, 0.00%) 광공업생산(MoM -0.80%, YoY -1.20%) 서비스지수 전월비(0.1%)	15 한 9월 수입물가(MoM -3.5%, YoY +1.8%) 수출물가(MoM -2.6%, YoY +5.7%) 미 10월 뉴욕주 제조업지수(11.5) 유 8월 산업생산(MoM -0.3%, YoY -2.2%) 10월 ZEV 판매 예상 일 8월 광공업생산[F], 설비가동률(MoM +2.5%) 영 9월 실업수당청구자 비율 (4.70%)	16 한 8월 통화공급 M2(MoM +0.4%) 9월 실업률(2.4%) 미 10월 뉴욕 연준 서비스업 경기활동(0.5) 9월 수입물가(MoM -0.3%, YoY +0.8%) 수출물가(MoM -0.7%, YoY -0.7%) 일 8월 핵심기계수주(MoM -0.1%, YoY +8.7%) 9월 전국, 도쿄 백화점 판매 영 9월 CPI (MoM 0.30%, YoY 2.20%)	17 ECB 통화정책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1) 지난 회의에서 예금금리 3.50%로 25bp 인하 (2) 시장은 연내 ECB의 추가 인하 전망이나 인플레이션은 10월보다는 12월에 무게 미 9월 소매판매, 근원(MoM +0.1%, +0.2%) 광공업생산(MoM +0.8%), 설비가동률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1.7) NAHB 주택시장지수(41) 유 9월 CPI, CPI 근원[F] 일 9월 수출/입(YoY +5.6%, +2.3%)	18 미 9월 주택착공건수(MoM +9.6%) 건축여가(MoM +4.9%) 중 9월 신규주택가격, 실업률(5.3%) 광공업생산(YoY +4.5%) 소매판매(YoY +2.1%) 3Q GDP(QoQ +4.7%, YoY +5.0%) 유 8월 건설 생산(MoM +0.0%, YoY -2.2%) 일 9월 전국, 국내 CPI	19	
20	21 한 10월 1-20일 수출/입 (YoY +1.1%, -4.5%) 미 9월 섀넥스 지수(MoM -0.2%) 독 9월 PPI (MoM 0.20%, YoY -0.80%)	22 브릭스 정상회의(~24) 브릭스(BRICS) 정상회의(~24) : 튀르키예 가입 허용 여부 논의 한 9월 PPI(MoM -0.1%, YoY +1.6%) 미 10월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23 Beige Book 연준 베이지북 공개 한 10월 소비자심리지수(100) 미 9월 기준주택매매(MoM -2.5%) 유 10월 소비자대지수[P]	24 한 3Q GDP[A] 10월 기업경기실사 제조업, 비제조업 미 9월 시가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신규주택매매 10월 S&P 글로벌 제조, 서비스, 종합 PMI[P] 캔자스시티 제조업 활동 유 10월 HCOB 제조업, 서비스업, 종합 PMI[P] 일 10월 지분은행 종합, 제조업, 서비스 PMI[P] 영 10월 S&P 글로벌영국 종합	25 IMF/WB 연례회의(~27) IMF/WB 연례회의(~27) 미 9월 내구재 주문[P], 내구재 주문 근원[P] 10월 미시간 소비자신뢰, 기대, 경기연황[F] 미시간 1년, 5-10년 인플레이션[F] 캔자스시티 연준 서비스업 활동 일 10월 도쿄 CPI, CPI 근원 영 10월 GfK 소비자대지수(-20) 독 10월 IFO기업환경 (85.4)	26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